

성균극회 125회 여름대공연 연출 인수인계서

62기 허은세

1. 공연 준비의 준비

연출의 공연 준비는 남들보다 훨씬 빨리 시작하게 됩니다. 정식 연습시작 약 한 달 전부터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업무를 나누자면 크게 3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작품

저는 처음부터 <보도지침>이라는 작품을 꼭 하고 싶어서 연출을 하게 된 것이라 작품 선정에 있어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작품의 대본을 찾고, 대본을 읽어보며 큰 그림을 우선 그려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린 <보도지침>은 정말 좋은 작품이었으나, 대사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배우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대학교 극회에서도 여러 차례 올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은 2016년에 처음 나와, 몇 번의 수정을 거친 작품이었고 인터넷에서 2016년도의 대본을, 책으로 2019년도의 대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읽어보고 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선택하여 조합해 저희만의 대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시작 전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준비 중에 문의를 했다가 거절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공연이라 법적 문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성균극회라는 집단에 누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작품 선정하실 때 저작권문제를 꼭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인력

먼저 61기, 62기 사이에서 함께 공연을 이끌어 나갈 키스텝을 꾸렸습니다. 보통 공연에서는 공연진 모집을 모두 한 후에 팀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선배와 후배의 비중이 2:8정도였기 때문에 키스텝을 먼저 확정하고 공연진을 모집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동아리 신입생들이 많아 극회 활동의 참여도가 높은 한 해였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예상했고, 정말 많은 극회인들이 공연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워크샵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공연 진행에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키스텝들과 미리 논의하여 각 팀에 몇 명이 적정 인원이고, 최대 몇 명까지 괜찮을지 이야기를 하고, 맥시멈 인원을 정해두고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팀이 필요 인원보다 많은 지원을 받았고, 원활한 팀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지원자들의 스케줄을 받아서 공연진 인원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팀 인원 관리 및 배정은 연출진의 업무였는데 이번에는 팀장이 미리 정해져있다 보니까 각 팀장이 해주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 타임라인

조연출, 기획팀장과 함께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짰습니다.

6/17-6/19 공연진 모집

6/25 시파티

6/26~ 연습시작

7/14-7/15 공연진 MT

7/23-7/24 프로필 사진 촬영

8/18 시연회

8/24-8/27 공연

타임라인은 위와 같았으며, 미리 타임라인을 짜두고 일찍 공지해두는 것이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여름방학이다 보니 개인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서 피해서 하도록 미리 공지해두는 것입니다 ...

이번 공연은 7명의 캐스트가 필요한 공연이었고, 많은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캐스트의 경우 월-금 연습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스케줄로 인원을 자르거나 다른 팀으로 배정했고, 그래도 인원이 많아 캐스트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말이 면접이지 그냥 가볍게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잘 모르는 지원자들이 대부분이라 왜 캐스트가 하고 싶은지,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니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개인의 호불호보다는 7명의 조화나 케미스트리를 생각하고 조합했습니다. 너무 캐릭터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모이면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지, 누가 리더의 역할이 되고 누가 팔로워가 될 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2. 공연 준비

2-1. 캐스트 연습

연출의 일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캐스트 연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캐스트 연습은 크게 트레이닝과 장면연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의 경우에는 2주간 트레이닝 -> 배역 오디션 -> 대본분석 + 트레이닝 -> 장면연습 -> 런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2주간 트레이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조연출일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트레이닝이 많이 적혀 있어 참고하기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캐스트 연습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하였고 중간에 1시간 반 정도의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연이 3주 남은 시점인 8월부터는 텐 투 텐으로 12시간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트레이닝은 공연 시작 전 조연출과 함께 회의를 통해 일주일치 일정표를 짜 놓고 진행했습니다. 일정표를 토대로 진행하면서 좋은 건 늘리기도,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 건 빼기도 하며 유동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트레이닝이 고갈되기도 하고 각 트레이닝들의 순서가 이게 맞는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고민되었던 것은 캐스트를 이미 해 본 친구들은 이미 했던 트레이닝을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진 않을까? 였습니다. 그렇지만 트레이닝은 연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는 것 보다 연출진과 캐스트가 가까워지는 것이 더 우선이기에 부담 없이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단순 정보 전달에는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조교로 열심히 쓰려고 했습니다. 연습이 잘 안 되는 날은 나가서 놀기도 하고, 얘기만 하루 종일 하기도 했습니다. 트레이닝 중에는 이번에도 역시 캐스트들에게 다양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숙제는 연습하지 않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트레이닝 중 받는 숙제들은 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해는 남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앞으로 계속 볼 연개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받았던 숙제를 내주려고 했었는데 연출이 캐스트들이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숙제를 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로 채우며 트레이닝은 함께 무엇을 했는지 보다 무엇으로든 함께 채운 시간 자체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디션은 캐스트들 각자 1,2순위를 정해서 원하는 부분을 준비해오도록 하여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준비한 것들을 보고 연출진이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캐릭터 리딩도 부탁했습니다. 연출진은 미리 캐릭터마다 캐릭터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을 몇 개 정해놓고 바로바로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원래 연극을 준비 하다보면 대충 머리 속으로 캐스팅을 해놓는데 정말 이번엔 감이 안와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엔 젠더프리로 가능한 캐릭터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었던 것이 더 저를 고민되게 만들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오디션을 막상 보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많이 깨집니다. 오디션을 토대로 조연출과 정말 많이 고민했고 초기에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달랐지만 최선의 캐스팅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연극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니만큼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본 분석은 각자 대본을 읽어보고 전사 작업 및 관계 설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멀티가 2명이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배역을 중심으로 전사 작업을 하고, 다른 짧은 배역들은 그 장면에서의 상황만 확실히 설정하였습니다. 대본에 대한 이야기는 할수록 새롭고 좋은 작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출이 대본을 정말 잘 읽고, 많이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들이 갈피를 못 잡는 포인트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순간들에 정답을 알려주진 못해도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간혀 있는 배우들에게는 새로운 풀이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대본 분석에서 연출이 해야 하는 일 같습니다. 충분히 대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장면연습에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고 한 장면에서 모두 따로 노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장면씩 잘 뜯어보며 장면연습으로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면 연습은 가장 어렵고 답이 없는 단계인 듯 합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가장 아쉬웠던 건 장면 연습을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장면 연습을 시작할 때는 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충 잡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막상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처음 대충 잡은 위치로 공연까지 세우게 되더군요... 작은 동선은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큰 위치는 나중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들을 장면에 세우기 전에 연출진끼리든, 혼자든 충분히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때 그때 너무 오래 고민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역시 더 미리 준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면 연습에 처음 들어갈 때는 이미 얘기한 것이라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꼬치꼬치 캐물어가며 배우들 사이의 약속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무대 위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눈에 띄는 목적이 있는 장면이라면 목적 상황극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배우들이 억지가 아니라 그 감정 엿비슷한 것이라도 느끼게 되는데, 그 때 장면에 들어가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적 상황극을 하면서 만들어진 동선도 있을 것이고 앞 장면의 큰 위치도 있을테니 그 안에서 위치나 큰 움직임들을 잡으며 장면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장면 만들기의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작품은 특히나 7명 중 3명이 러닝타임 내내 무대 위에 있는데 시공간이 계속해서 바뀌는 연극이기 때문에 동선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선을 연출이 잡아줄 수는 없으니 틀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배우들이 직접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가끔 막힐 때에는 막히는 이유를 풀어줄 수 있는 선배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선배님들을 잘 써먹으세요... 꼭

+독백

이번 연극은 독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경계했던 건 긴 대사들을 맛없게 뱉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사들

이 말처럼 들릴 수 있게 이끌어내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글들을 그림으로 채워낼 수 있게 그냥 본인 말로 하도록 시켜보기도 하고 사실 어떤 부분은 과하게 제가 개입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선배들이 말하는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었으나... 연출의 자리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앉으면 다 보입니다. 선생님이 집중 안 하는 애들 다 알 듯이 어느 부분에서 충분히 느꼈고, 어느 부분에서 대사가 잠시 헛갈렸고, 어디서 다른 생각을 했는지... 집중하면 다 보입니다. 저도 신기했어요. 독백 클래스101을 해서 옆에서 계속 꼬집어 주면서 독백을 봐주고, 제가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일 대 일로도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연출 선배님은 배우에게 독백을 정말 여러 번 시켜서 맞는 걸 찾게끔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의 독백은 너무 길기도 하고 정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서 오히려 저는 많이 안 시켜봤습니다. 그 안을 채우는 과정을 오래 함께하며 이야기 나누고 실제 독백은 허투루 뵈게 하고 싶지 않았습다. 여러 아이들과 독백 훈련을 해보면 정말 개개인이 알아 듣는 것도 다르고 개개인에게 효과적인 말과 피드백도 다릅니다. 캐스트들의 특성과 독백의 성격을 잘 생각하고 연습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2-2. 스텝 업무

극회의 연출은 무대감독의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텝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키스텝 회의는 주 1회 진행했고, 작년에는 캐스트 연습 도중에 시간을 내어 회의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촉박하고 집중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판단이 되어 토요일에 오후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캐스트와 연습도 진행해야 하는 연출진은 주 6일을 뺏기는 일정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로 팀장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팀원들을 한 명씩 대동해오는 대동제를 진행했습니다. 팀원들은 단지 팀의 진행상황만 알게 되니까 공연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였고, 이번에 키스텝진이 대부분 마지막 공연이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팀원들의 후기를 들어보니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어서 계속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스텝 회의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팀 하나하나 정확히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할 것이고 논의사항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점 같습니다. 작년에는 큐시트를 작성했고,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다. 이런 식으로만 보고했다면 더 구체적으로 큐시트를 보며 피드백을 한다던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키스텝 회의만으로는 스텝 업무를 다 해결할 순 없습니다. 이번엔 각 팀장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조명, 음향 같은 경우에는 대본에 나와있는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장면을 만들기 전 혹은 만들면서 연출진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먼저 조명의 경우, 조명 디자인 회의가 있는 조명팀 회의 날 참석하여 현재 장면 연습 진행방향을 설명하고,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하면 좋겠다 같은 큰 틀을 잡아주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기존에는 장면 연습과 조명 디자인이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다가 막판에 합쳐지려다 보니 결국 조명팀에서 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수용되지 못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꾸준한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고자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계속 같이 고민해준 조명팀장 유진언니와 항상 곁을 지켜준 조연출 연희에게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지막까지 조명 작업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음향도 마찬가지로 대본을 읽고, 장면 구상 단계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음향 포인트

를 생각해놓고, 동시에 음향팀도 포인트를 찾아서 취합하고 음향 셀렉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번 음향팀은 여러 이슈들로 잘 운영되지 않아서 음향을 확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팀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연출은 일단 공연의 퀄리티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어진다 싶으면 본인이 음향을 찾는 것이 쉽고 빠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 음악과 커튼콜 음악 등 그냥 제가 찾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음향은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요... 또 이번에 음향 큐시트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시연회 직전에 음향 들어가는 포인트나 나가는 포인트를 정리하고, 페이드인인지 컷인인지 정했었는데 이러한 논의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같이 이야기하며 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텝팀의 활발한 연습 참관이 꼭 필요합니다. 합평 회에서도, 공연 중에서도 스텝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대본으로만 장면을 읽었을 때와 만들어진 장면을 봤을 때 정말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연습 참관은 공연 시작부터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소분의 경우, 이번 공연은 팸플렛 촬영까지 캐스트들의 의상이 픽스되어야 해서 그렇게 데드라인을 정하니 빠르게 픽스되었습니다. 사실 의소분이 애매한 것은 언제까지 대체 소품으로 연습을 하고 언제 실제 무대에서 쓰일 소품을 사용하는지 그 포인트를 잡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자잘한 소품이 굉장히 많았는데 구체적인 데드라인이 없다보니까 준비가 점점 미뤄졌습니다. 소품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초반에 큰 데드라인을 정하고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소분팀에게 반드시 소품 리스트를 준비해달라고 말해서 의소분이 기본적으로 장면마다 필요한 소품들을 정리하면, 연개가 그에 덧붙이거나 빼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자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대는 열정적인 팀원들이 모여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었습니다. 게다가 무대 팀장님이 매주 알아보기 쉽게 팀 회의내용을 시각화 해주셔서 키스텝 회의 때 논의사항이 생기면 다같이 논의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무대였음에도 실력자들이 많아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역시나! 예쁘게 무대 잘 세워준 무대팀의 노고에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ㅎ

기획은 개인적으로 지난 공연 카드뉴스들에 연극 전반적인 스토리나 연캐에 관한 내용들만 많이 들어가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기에, 최대한 모든 팀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어 팀장 인터뷰를 올려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이슈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처럼 기획팀과 처음에 카드뉴스처럼 꾸준히 공연기간 내내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논의했고, 기획팀에서 포스터와 팸플렛 작업을 해주셔서 기획팀 회의가 있는 날 회의 전 시간만 캐스트들끼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작품을 워낙 일찍 정한지라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원하는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진행하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와 팸플렛이 정말 잘 나와서 기쁩니다!!! 가급적 꼭 실력자에게 맡기시길... 군에 있음에도 열심히 온라인 팸플렛을 제작해주신 동건 오빠에게도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이미 기획 팀장을 맡은 채연이와 연출진-기획팀장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미리 이야기하면 좋은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준비한만큼 공연 준비에 돌입해서는 순탄하게 기획 업무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깔끔하고 꼼꼼하게 잘 처리해준 채연이에게도 고맙다는 인사 전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스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해서 잘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매주 토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울전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각 팀의 막내였던 우리가 어느덧 팀장, 연출이 되어 모이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 뜨겁게 연극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냈던 시간이 너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같이 좋은 결과물, 그리고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낸 듯 해

서 기쁩니다. 함께 즐겁게 회의하고 술 마시고 놀아준 키스텝 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3. 공연

공연 주에는 캐스트의 컨디션 관리와 연출진이 무대 설치, 조명 설치 현황을 확인해야 해서 10-6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극장을 일주일간 대관하여 공연일인 목-일 4일을 제외하고도 3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 하루, 조명 설치 하루, 큐 맞추기 & 리허설 하루로 계획을 했었고, 실제로는 무대 설치가 약간 딜레이 되어 병행하며 진행했지만 계획이 크게 어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연출이 극장에서 해야 할 일로는 크게 캐스트 관리, 스텝 업무 지휘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각 팀별로 짜져 있는 타임라인에서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이 모두 진행되도록 상황을 정리합니다. 또 당일 상황을 고려해 다음날 콜타임이나 계획을 세우고 공지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진행해온 캐스트들과 달리 스텝은 유일하게 극장에서의 시간만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스텝들이 짧은 시간 안에 기기 조작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공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부족해서 캐스트와 스텝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때문에 극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캐스트들에게 극장에서는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조심해주길 바란다고 여러 번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캐스트들이 정말 협조를 잘 해주어 이번에는 다행히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뒤깍이와 공연 모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캐스트 관리와 작은 소품들 수정 및 준비는 조연출 선생님이 맡아서 해주셨고, 저는 무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거나 계속 바뀌는 음향 및 조명 오퍼를 위해 뒤깍이를 진행했습니다. 공연을 계속 보다 보면 조명 큐나 음향 큐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자주 보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이 막공 때까지 들더군요...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공연 끝나고 마다 조명팀과 이야기 나누며 정말 많은 수정을 거쳤고 마지막 공연까지도 계속 수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출진과 조명팀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을 올린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번 공연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그럴 여유가 있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런 피드백이 모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가 먼저 생각하고 피드백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정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정말 많은 컨펌이 이루어지는데, 이 컨펌은 공연 때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욕심부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시간과 공연진의 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무엇이 포기하는 게 낫고 무엇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게 나은지 상황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캐스트들이 언제까지 관객들과 인사하고 돌아와야 하는지, 관객이 어느 정도 왔는데 관객입장을 마감해야 하는지 등... 이걸 다 적어둘 수는 없고 아마 공연을 하다보면 보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연이 시작하고 나서는 제 자신이 너무 들떠있지 않았나... 좀 더 침착하고 프로다웠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딱 어떤 스탠스가 연출이 가지면 좋은 스탠스다. 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동아리 공연이니까 모두 좋은 분위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과하게 예민해졌다면 덩달아 예민해지기 보다는 풀어줄 줄도 알고, 과하게 풀어졌다면 좀 더 집중시킬 줄도 아는 것이 연출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적어도 본인이 공연을 마지막까지 잘 이끌어갔다면 분위기 정도는 지휘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니 한 가지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상황을 판단하며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처음 캐스트 친구들과 미팅을 했을 때, 채찍으로 내리치면 내리칠수록 잘 하는 채찍형 인간이나, 잘 한다 잘 한다 해줄수록 더 잘 하는 당근형 인간이나 물은 적이 있습니다. 딱 한 친구 빼고 모두가 당근형 인간이라고 했는데 돌이켜 보면 캐스트 친구들에게 당근보다 채찍을 많이 준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애절한 극회이기에, 마지막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루하루 아쉽기만 했습니다. 선배들만큼 잘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나만의 힘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 해보자!'라며 결코 쉽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눈 깜빡할 사이에 공연이 끝나 버렸습니다. 저는 워낙 욕심이 많고 평가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배들에게는 이 공연이 어떻게 보일지, 후배들은 극회에서 공연이 행복할지, 동기들에게는 우리들의 마지막 공연으로 아쉬움이 없는 공연이 될 수 있을지 부담감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다가도 저만의 방식이 저에게 연극을 알려준 선배들의 방식과는 다른 것 같아서 망설이기도 했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막 달리다가도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순간들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고 응원해준 조연출 연희에게 너무나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나를 믿고 나의 좇대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던 데에는 선배들의 눈치도 있었을 것이고, 습관처럼 의심한 제 자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이 내가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다고 느낀다면 그 순간에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 하나만 생각하고 그 고비를 넘어가야 한다는 게 아닐까요... 지금은 추억 미화 돼서 공연의 기억이 너무 아름답고 그 때 찍은 사진 보면 눈물날 것 같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로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제 발로 병원을 찾기도 했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랬네요... 연출이라는 자리가 너무 무겁고 항상 어려웠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 해낼 게 없는 엄마의 모성애처럼, 조연출 때는 항상 집중도 못하고 즐기기도 했던 제가 잠을 몇 시간을 자고 왔든 엄청난 집중력으로 아이들을 보게 돼서 참 신기했습니다. 조라는 글자 하나 차이가 생각보다 정말 크더라고요. 제가 캐스트를 했을 때는 그리 좋은 캐스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캐스트들은 정말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매일매일 고마웠습니다. 따뜻하지 못한 저를 잘 감당해주고 제가 그들에게 해주는 것보다 제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어서 자존감이 낮아질 틈이 없었네요... 함께 공연을 올려준 공연진들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공연을 한번 할때마다 공연 말고도 얻어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극회를 만나고, 극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던 걸 생각하면 전 정말 복.받.사가 분명하네요. 정말정말 끝으로 공연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어 준 키스탭들에게 고맙습니다. 앞에서 너무 많이 언급한 연희부터 인턴과 병행하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을 묵묵히 소화해준 유진언니, 누구보다도 많이 참관와서 연습 분위기를 밝혀준 하연이,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해주고 도와준 현진오빠, 형 누나 사이에서 고생 많았을 선웅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열심히 참여해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기획팀장 내여자 채연이까지... 같이 야기 때부터 연극을 했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공연을 올렸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정말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덕분에 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고비들도 넘길 수 있었고 그 어떤 공연보다도 행복한 추억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출분께는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배우는 게 연극의 묘미인 것 같거든요 ㅎㅎ 어차피 연극은 사람들끼리 살이 부닥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하나만 잘 새기고 본인 나름대로 재밌는 공연 올리세요. 모두가 행복한 공연되기를 바랍니다.

공연이 끝난 지 한 달이 훌쩍 넘은 시점... 제 인수인계서로 125회 공연은 정말 막을 내립니다. 모두들 감사하고 고생 많았습니다!